

## 쩐 득 르엉 베트남 주식 내외 주최 만찬답사

존경하는 찐 득 르엉 국가주석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과 베트남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각하께서 해 주신 좋은 말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하노이에 있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 나라와 비슷하다는 것, 시민들이 자신감에 차 있다는 것, 그리고 각하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ASEM 정상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1990년 이래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인도차이나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업화된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베트남의 목표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베트남 국민의 저력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주석 각하,

우리 두 나라 관계는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교한 지 10여년에 불과하지만, 수십년에 걸쳐서도 쌓기 어려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베트남에는 800여개에 이르는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한국의 베트남 투자 만도 44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베트남을 찾은 한국인은 15만명으로서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베트남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그만큼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우리 두 나라의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주석 각하,

베트남은 그동안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각하께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남북한을 모두 방문한 바 있는 각하께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주석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베트남의 번영, 그리고 우리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